광주교통공사, 중대재해 예방 CEO 특강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 서구 마륵동 본사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대비 CEO 특강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은 조익문 사장이 각 부서장 및 팀장, 현장 관리감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사례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의 철저한 실시 등 선제적인 위험요인 감소 대책 발굴을 당부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모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핵심수단이다. 공사는 전동차 유지보수, 시설물 관리 등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중대재해예방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광주환경공단, 광주천 봄맞이 환경 정비

광주환경공단은 광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천 일대에 벚꽃, 유채꽃, 개나리 등 봄꽃이 만개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자연경관을 선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벚꽃은 이번 주 개화가 시작됐으며, 다음 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광주천은 봄철이 되면 둔치에는 푸른 새싹과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하천에는 산란기를 앞둔 잉어떼가 활발히 움직이는 등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오리, 왜가리, 백로 등 철새들이 찾아와 도심 속 자연 생태계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광주천을 따라 조성된 5.2㎞ 길이의 산책로를 정비했다. 더불어, 올해는 동천동에서 발산교 주변 좌·우안 둔치에 약 1만4000㎡ 규모의 유채꽃밭을 새롭게 조성해 광주천을 대표적인 봄꽃 명소로 발돋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남부대, (사)아시아골프연맹과 프로선수 양성 업무협약

남부대학교는 (사)아시아골프연맹과 최근 남부대 대회의실에서 골프 프로 선수 양성 및 건전한 골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사진)

협약식에는 남부대 조준범 총장, 황민구 교무처장, 구민 학술원장, (사)아시아골프연맹 김용호 회장, 이관호 전략기획본부장, 함태우 서울시광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남부대학교 학부, 대학원생들은 프로테스트 실기 시험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고, 골프선수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최동환 기자

전국 시도연구원 연합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 출범

전국 시도연구원의 연합체인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가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사진)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정기총회를 통해 공식 의결됐다.

정기총회에는 광주연구원,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경북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연구원, 인천연구원, 전남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총 18개 연구기관의 기관장 및 임직원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도시 간 지식공유와 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시티넷(CityNet)'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티넷은 아시아·태평양 최대 도시 정부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국제기구로,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지역 연구성과의 국제 확산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전국 지방연구원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 북부소방, 청명·한식 맞이 산불 예방

광주 북부소방은 지난 4~5일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비상소화장치 일제 점검 및 예비살수 활동을 집중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

청명(4월4일)과 한식(4월5일) 전·후는 건조한 날씨와 성묘,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화재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은 산불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한 산불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의 작동 상태 점검 및 예비살수 체계를 구축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북부소방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들도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고 인근 비상소화장치 위치 확인 등 산불 및 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부소방은 앞으로도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광주 남부소방, '산불 예방 캠페인' 전개

광주 남부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난 3~4일 남구 제석산과 분적산 등산로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

이번 캠페인에는 남부소방 공무원 20여명과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이 참가해 봄철 건조한 날씨 산불예방을 위한 등반 중 흡연 금지, 입산 시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했다.

남부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지역민들에게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지속저긍로 펼칠 계획이다.

박충훈 남부소방서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산불 예방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세관, '4월 으뜸 광주세관인' 시상식

광주본부세관은 마약 국내 밀반입을 차단한 공로를 인정해 김현수·김지원·권소미 주무관 등 3명을 '4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

김현수 주무관은 집중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 여행객을 검사 선별하는 데 기여했다.

김지원 주무관과 권소미 주무관은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수화물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했다.

이들은 뛰어난 팀웍으로 마약 5.31㎏(5억3000만원 상당) 밀반입을 2차례 연속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매달 탁월한 업무성과를 통해 세관의 명예를 드높인 공직자를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한다"며 "김현수 주무관 등은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해 으뜸 세관인으로 뽑혔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호남대, '제 18기 학생홍보대사' 면접·오디션

호남대학교는 최근 학교 통합뉴스센터 매직스튜디오에서 제18기 학생홍보대사 '호나미' 면접 및 오디션을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사진)

이날 면접 및 오디션에서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1차 합격자 10명이 자기소개와 면접관과의 일문일답, 카메라 테스트, 장기자랑 등을 통해 자신만의 자질과 끼를 선보였다.

최종 선발된 학생홍보대사 '호나미'는 대학 홍보물·영상 제작, 입시박람회, SNS 홍보는 물론 유튜브 채널 '호호티비'를 통한 다양한 대학생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약하게 된다. 최동환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한석규 제주항공 참사 다큐 참여 "위로 된다면 기꺼이"

배우 한석규(사진)가 제주항공 참사 100일을 담은 다큐멘터리 '작별하지 않는다'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7일 KBS 1TV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작별하지 않는다'를 방송한다.

한석규는 "내 목소리가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며 이번 작품에 함께했다.

한석규는 더빙 작업 내내 눈시울을 붉히며 유가족에게 크게 공감했다. 더빙을 끝낸 후엔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를 사고 당일부터 100일간 밀착 취재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유가족의 현재 모습을 밀도 있게 전하며 비극을 이겨내기 위한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참사로 딸과 아내를 잃은 김성철 씨,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보낸 나명례 씨, 서해훼리호와 세월호까지 수습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 5명을 한꺼번에 떠난 박인욱씨 이야기를 통해 참사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몫이라고 알린다.

무안공항 쉘터(쉼터)에서 떠나지 못하는 유가족의 명절 설 차림 장면은 공동체 연대가 뜨거운 인류애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9재 씻김굿과 종이옷을 태우는 장면에서는 슬픔을 이겨내려는 인간의 성숙한 몸부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뉴시스